

미 하원의장 “중국과 경쟁서 승리”

매카시, 선출 후 첫 비전 제시
 “아프간 철수·FBI 정치화 조사”
 불법이민·국가채무 문제도 언급
 “남부 국경서 청문회 열겠다”

제118대 미국 의회에서 하원을 이끌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앞으로 가장 우선으로 다룰 사안으로 중국 문제를 거론했다. 하원의 15차례 투표 끝에 7일(현지시간) 새벽 당선인 확정된 매카시 의장은 선출 후 첫 연설에서 향후 하원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은 “미국의 오래된 문제인 채무와 중국 공산당의 부상을 해결할 것”이라며 “의회는 이 두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

국에 넘어간 수십만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조사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중국과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예전부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의장이 되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뽕 뚫린 남부 국경, 에너지 정책, 우리 학교에서 이뤄지는 ‘워크’(Woke) 주입 등 미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시장할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깨어있는’ 정도로 번역되는 워크는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적 정의, 정치적 올바름과 같은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데 공화당 강경파는 학교에서 이런 가치를 교육하는 데 비판적이다. 그는 “더는 위기를, 우리의 안전과 주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새 의회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는 청문회 중 하나를 미국의 남부 국경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개방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 문제를 키운다며 더 엄격한 국경 통제를 주장해왔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의장으로서 내 궁극적인 책임은 공화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공격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의 정부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 연방수사국(FBI)의 ‘무기화’와 관련한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이를 위해 우리의 예산권과 소환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철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비판하고, FBI 등 정부 기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아베 총격범에 총기법 위반 추가
 아사히 “범행 직후 통일교 언급”

일본 경찰이 6개월 전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에게 살인죄에 더해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중 야마가미 데쓰야가 7~8m 거리에서 쏜 사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구속 기한인 오는 13일 이전에 그를 살인죄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을 굳혔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나라현 경찰은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만들었고,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 나라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그가 총격 시점으로부터 30분쯤 지난 뒤 경찰에 곧바로 ‘통일교’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통일교 최고 지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그가 코로나19로 일본에 오지 않아서 통일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NYT “한국 65세이상 40%가 일해”

‘은퇴 못하는 아시아 노인들’ 조명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요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면서 70대 이상 고령에도 일해야만 하는 처지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각국 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퇴직자들에게 다달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미 수년간 선진국들의 ‘인구구조적 시한폭탄’을 경고해 왔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정부와 기업, 누구보다도 고령층 자신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젊은 시절 사무직, 택시기사 등을 거쳐 식료품 배달을 하고 있는 오나미 요시히토(73) 씨는 새벽 1시 30분이면 일어나 트럭을 몰고 일을 나간다. 그는 “이 나이에 일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다”라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그가 받는 기초 연금은 한달에 6만엔(약 57만원)이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0%가량 된다. 홍콩에서는 노인 8명 중 1명꼴로 일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노인 4명 중 1명꼴로 일한다. 미국에서 18%

인 것과 비교해 높은 것이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풍경이나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는 고령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직업소개소나 노조가 있다. 일본 기업 절반이 정규직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구인에 나서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본 정부는 고령 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그들도 질이고 있다. 안정적인 정규 사무직은 대체로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며, 노인들에게는 저임금에 체력적 소모가 큰 계약직 자리를 주로 돌아오는 문제다. 소셜미디어에는 ‘일하는 노인’이란 성공적으로 왕성하게 일하는 기업인들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동아시아 현실 속의 많은 노인들은 청소나 마트, 배달, 경비 등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 저임금 계약직의 경우 기업의 퇴직연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기초 연금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의 평균 연금은 월 500달러(약 63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일본과 한국, 중국, 홍콩에서 노인들이 일을 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기사에 곁들이면서, 한국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나눠주는 한 시설에서 노인들이 아침 9시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다리 위에서 균형잡기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소방청 연례행사에서 ‘에도소방대 보존협회’ 회원들이 대나무 사다리 위에서 균형잡기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 행사는 매년 1월 6일 열린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작년 총 40조원 원조...미국 40% 차지

지난해 한 해 우크라이나가 받은 원조액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320억 달러(약 40조3천200억원) 이상이라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원조액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약 40%로 가장 컸고, 유럽연합(EU)이 25% 미만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약 8%를 기록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16억 달러(약 2조160억원)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받은 원조액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규모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미국, EU, 주요 7개국(G7) 등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전쟁의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GDP가 2021년보다 30.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멕시코서 지하철 충돌 17명 사상 정비불량 등 문제 잦은 사고 발생

7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지하철 열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시 당국이 밝혔다. 클라우디아 세인베우 멕시코시티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16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1명의 사망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매체들은 멕시코시티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3호선 포트리요역과 라라사역 사이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인구 2천만 명의 멕시코시티는 지난 1969년 지하철을 개통해 현재 195개역에서 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지하철은 정비 불량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낸 바 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고가 철도가 무너져 26명이 사망하고 100명 가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하이랜드(주)

(주)누리산업개발

(주)나로디엠씨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